

한국 선사시대의 골기 (韓國 先史時代의 骨器)

文化財管理局 專門委員

崔 茂 藏

目 次

- | | |
|-----------|---------|
| 1. 서언 | 4. 철기시대 |
| 2. 신석기 시대 | 5. 결어 |
| 3. 청동기 시대 | |

1. 서언

골기(骨器)(골각기(骨角器))는 공구(工具)를 제조(製造)하는 도구(道具), 장식품(裝飾品) 또는 무기(武器)로 사용되었다.

최초(最初)의 골기(骨器)는 구석기전기유적지(舊石器前期遺蹟址)인 북경(北京) 주구점(周口店) 제(第)1지점(地店)에서 나온 뼈토막에 대하여 불란서(佛蘭西) 고고학계(考古學界)의 석학(碩學)인 앙리 부뢰이(H.Breuil)가 1931년과 1935년 2차의 중국방문(中國訪問) 연구결과(研究結果) 명명(命名)되었다.

그러나 주구점발굴(周口店發掘) 첫해, 1927년부터 지금까지 참석하고 있는 중국고고학자(中國考古學者) 배문중(裴文中)은 뼈토막이 인위적(人爲的) 또는 자연적(自然的)(ation mecanique)으로 긁히고(gratte), 베어지고(incise), 깨지고(casse) 한 것은 골기(骨器)(Industrie ossesse)가 아니라고 부인(否認)하고 나섰다¹⁾.

골기(骨器)가 아니라고 부인(否認)한 배문중(裴文中)의 주장(主張)은 옳은 것 같다. 구석기전기유지(舊石器前期遺址)의 하나인 영국(英國)의 클락톤(Clacton on sea)에서 저창(猪槍)(Epieu)이 1점 출토(出土) 되었으나 그것은 목제(木製)였다²⁾.

확실한 골기(骨器)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서쪽에서 60km 떨어진 타타(Tate) 유지에서 출토(出土)된 구석기중기(舊石器中期)(Mousterien)의 석기제작도구(石器製作道具)

(Compresseur en os) 한점과 한점의 황토(ocre) 칠을 한 어금니였다³⁾.

구석기전기(舊石器前期)와 중기(中期)에는 골기(骨器)(도구(道具), 장식품(裝飾品), 무기(武器))가 거의 없었다.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시기에는 돌과 돌로서 공구(工具)를 제작(製作)하였고 어려운 자연환경(自然環境)과 당시 인간(人間)의 생각이 아직 골기(骨器)를 제조(製造)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기후의 춥고 따뜻한 변화는 인간(人間)의 양적(量的) 다과(多寡)에 대단히 민첩하였다. 갱신세(更新世) 세 번째 빙하(氷河)(Riss)기(期)가 지난 다음 지구상(地球上)에 인간(人間)의 수(數)는 제법 많아졌고 자연(自然)의 극복(克服)과 동물들에 대한 수렵생활은 인간(人間)의 사상(思想)에 많은 진보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상(思想)은 생활(生活)에 이기(利器)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미적감각(美的感覺)이란 새로운 사상철학(思想哲學)을 잉태하였다.

구석기후기초(舊石器後期初)가 되면 이 지구상에 마지막 빙하기(wurm)의 무서운 추위에 봉착하여 인간(人間)은 동적생활(動的生活)보다 동굴, 바위밑 피난소, 또는 동물의 가죽으로 된 천막내에서 정적생활(靜的生活)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정적생활(靜的生活)은 안일할 수 없었다. 삶을 위한 생활수단을 더욱 편리하고 유익(有益)하게 더 많이 제조(製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물은 기후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고 이동되었다. 인간(人間)은 유일(有一)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의 뒤를 따라 이동하여야만 되었다.

수렵된 동물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가죽은 천막과 옷, 살은 양식, 뼈는 공구(工具)를 제작(製作)하는 도구(道具), 무기(武器)와 장식품(裝飾品)이 되었다.

이러한 근거로는 석기제작(石器製作)과정의 순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첫째는 돌로써 돌을 쳐서 만들고 둘째는 떼어낸 석편(石片)을 손에 잡고 그 손을 무릎위에 올려놓은 다음 다른 손에 소석중(小石中)조각(수정, 제2가공시)을 떼어내는 도구(道具)(Compresseur, 누르는 도구)를 들고 나머지 무릎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

세 번째는 연약한 마치(percuteur doux, 나무, 뼈)로서 한손에 석재(石材)를 들고 직접 쳐서 만드는 과정이다. 마지막 두가지의 방법은 구석기(舊石器) 후기(後期)에 비로써 시작되고 발전되었다⁴⁾.

구석기후기초기(舊石器後期初), 페리고르디엔(perigordien) 유지인 블란서 yonne, Arcy-sur-cure에서 유공(有孔)의 동물이(치(齒))와 송곳(뼈) 2점(點)이 출토(出土)되었다. 블란서 로제리오투(Laugeri-Haute)유지의 페리고르디엔 후기(後期)에 뼈로 된 2개의 투창(Sagaies)과 하나의 구멍뚫린 이(치(齒)), 목걸이 장식품)가 발견되었다⁵⁾.

그다음 시기인 오리냐시엔(Aurignacien)에도 블란서 도르돈, 세르제악에 있는 부랑샤르(Blanchard) 피난처에서 구멍뚫린 동물 어금니를 발견하였다⁶⁾.

그외는 모두 구석기후기(舊石器後期)의 마지막 시기인 마그다레니엔(Magdalenien) 시기에 발달되었다. 그 대표적인 유물은 밀이 작살처럼 벌어진 송곳(그 사이에 막대기를 끼어넣고 매어 사용), 짐승얼굴, 나무등을 장식한 투창, 지휘봉(장식, 풀잎같은 단순한 것), 투창을 던지는 도구(propulseur a crochet)와 일측(一側)작살(Harpan)과 양측(兩側)작살 등이 나타나고 어느 양측(兩側)작살 하부중심(下部中心)에는 구멍을 뚫은 것도 있다⁷⁾.

우리와 가까운 이웃, 중국(中國) 주구점산정동(周口店山頂洞) 구석기후기(舊石器後期)(기원전 20,000~10,000년) 유지에서 귀(구멍)가 깨진 뼈바늘 1개, 길이 8.2cm, 사슴의 구멍뚫린 2개의 상견치(上犬齒), 여우와 오소리의 구멍 뚫린 3개의 견치(犬齒), 용도 불명의 흠이 파진 긴 뼈조각과 흠이 3군데 약간씩 파진 뼈토막 등이 출토(出土)되었다. 그외 구멍뚫린 조개껍질과 돌도 발견되었다⁸⁾.

다시 말할 필요없이 바늘 외 구멍뚫린 이(치(齒))들은 목걸이 장식품이고, 흠이 파진 뼈토막은 단추(?)나 장식품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구석기(舊石器)와 중석기(中石器)의 전반적인 조사(調查)미급으로 아직 우리의 골기사(骨器史)를 논(論)할 여하(如何)한 자료가 아직 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발굴(發掘)에서 골기(骨器)들이 출토(出土)될 가능성(可能性)이 충분하다.

우리 신석기, 청동기와 철기시대, 골기(骨器)들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대부분이 시구(施具), 장식품(치(齒)), 선(鏃)과 칼자루(병(柄))이다.

2.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즐문토기(櫛文土器) I기(期)에 속(屬)하는 골기(骨器)는 아직 보고(報告)된 것이 없다.

즐문토기(櫛文土器) II기(期)에 속(屬)하는 궁산리(弓山里)유적(현, 대동강하류(大洞江下流), 온천군(溫泉郡) 운하리(雲下里))에서는 많은 골기(骨器)가 출토(出土)되었다.

첨기(尖器)는 모두 110개 나왔다. 사지골(四肢骨) 혹조골(或肋骨)을 절단(切斷)하여 끝만 뾰족하게 마연(磨研)한것과 장골(長骨)을 쪼개어 전면(全面)을 갈은 것 두 가지가 있다. 후자(後者)는 직경 5mm, 길이 10cm 정도이다.

예새(골비(骨篋))(도 1.4)는 약70개로 대체(大體)로 길이 10cm, 폭(幅) 1~2cm의 부분마제(部分磨製)이다. 송곳, 시문(施文), 동물 처리등 여러 가지 용도(用度)로 사용(使用)되었다.

각초(角鋏)(도2)는 사슴(북경각록(北京角鹿))의 뿔을 이용(利用)한 것 위로 대소(大小) 약(約) 80개가 출토(出土)되었다. 소형(小型)의 것은 야초(野草)를 캐는 부삽으로 사용(使用)되었다.

아겸(牙鎌)(도3)은 산돼지의 견치(犬齒)를 세도로 쪼개 만든 것으로 6점이 나왔다. 직경3mm 정도로 구멍을 1개 또는 4개 뚫어 자루 매는데 사용하였다

아인(牙刃), 동물(動物)의 견치(犬齒)를 양면(兩面) 마연(磨研)하여 인(刃)으로 만들고 치근(齒根)쪽은 자루처럼 남아있다. 모두 26개가 출토(出土)되었다. 나무자루를 매어 사용하였을 것이다.

골침(骨針)(도1.8), 전면마제(全面磨製)의 구멍뚫린 바늘, 단면(斷面)이 원형(圓形)인 것과 편평한 것의 2종(種), 원형(圓形)의 것 하나에서는 마사(麻絲)가 꿰어진 채 발견되었다. 길이는 7~9cm 정도이다.

토기시문구(土器施文具)(도4), 장골(長骨)을 세로로 잘라서 끝을 간 다음 6조(條)의 홈을 팠다. 소위(所謂) 다치시문구(多齒施文具)임이 분명하다.9)

또 궁산(弓山)에서는 장식품(裝飾品)으로 골제(骨制) 대롱구슬(관옥(管玉))과 칼(도5)도 있었다. 구슬은 길이가 6cm이다.10)

대동강지역(大洞江地域)의 예(例)로 보아 골기(骨器)가 한강유역(漢江流域)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소야도(蘇爺島)에서 길이 4cm의 원추(圓錐) 1점(點)만 채집되었다. 위는 삼각형으로 깎고 아래는 뾰족하게 마연(磨研)하였다.11)

동삼동(東三洞)에서는 많은 골각기(骨角器) 및 패각기(貝角器)가 채집되었다. 동삼동(東三洞)II(즐문(櫛文)I)에 해당되는 패층내(貝層內)에 서 골침(骨針)또는 추(錐), 엽형골선(葉形骨鏃), 역자(逆子)가 달린 길이 5cm 전후의 조침(釣針) 등(等)이 나왔다. 조침(釣針)은 뼈를 둥글게 마제(磨製)하여 두부(頭部)에는 2~3줄 끈을 매기 위한 홈이 패어져 있었다.

또 장골(長骨)을 절개한 것을 마연(磨研)하여 시문구(施文具)로 사용할 수 있는 예새로 만든 것도 있었다.

짐승의 견치(犬齒)의 치근(齒根)을 구멍뚫은 것은 장신구(裝身具) 아니면 토기시문구(土器施文具)로 생각할 수 있다.

그의 농소리(農所里)에서도 골침(骨針) 혹(或) 골추(骨錐) 2개 출토(出土)되었다.¹²⁾

역시(亦是) 즐문(櫛文)Ⅱ기(期)에 속하는 농포리(農圃里)에서 짐승의 지골(肢骨)을 절개(切開)하여 만든 첨구(尖具), 예새 등이 출토(出土)되었다. 그중 특별히 끝이 뾰족하게 된 송곳도 있었다.

이러한 첨구(尖具)나 예새는 토기시문구(土器施文具)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예새 하나는 끝이 7치(齒)로 된 것도 있었다. 그리고 녹각(鹿角)으로 만든 좌우(左右) 3자(刺)의 첨두(銚頭)(도6)도 있었다.¹³⁾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골기(骨器)는 고기잡이 수렵과 수렵공구 뿐만아니라 장신구(裝身具), 생활용품(常生活用品)의 시문구(施文具)등이 출토(出土)되었다.

고기잡이에 사용한 바다뉘시의 경우는 녹각(鹿角)으로 만든 것이 부산(釜山) 동삼동(東三洞)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뉘시는 일본(日本) 학자(學者)들의 연구(研究)에 의하여 도미같은 비교적 큰 생선을 낚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한편 작살(Harpon)으로서는 녹각제(鹿角製)로서 좌우(左右)에 각(各) 3자(刺)가 달린 것이 있고 툽날처럼 된 석첨(石銚)도 출토되고 있어 그 크기로 보아 커다란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한 것 같다.

고기잡이 도구(道具)로서 이외에 나무작살, 대나무싸리로 만든 망태나 용수 따위도 아마 사용되었을 것이다.¹⁴⁾

농구(農具)는 궁산리(弓山里)에서 출토(出土)된 것으로 석제(石製) 외(外)에 녹각제(鹿角製), 초(鋏), 굴봉(掘棒), 그리고 저아(豬牙)로 만든 구멍 뚫린 낫도 있었다.¹⁵⁾

즐문토기인(櫛文土器人)들은 피의(皮衣)를 입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궁산리(弓山里)에서 마사(麻絲)가 꿰어진 구멍뚫린 뼈바늘을 포함하여(구멍직경 2mm), 굽뚫린 편침(編針)(구멍직경 5mm)이 함께 발견(發見)되고 있어, 간단한 방직(紡織) 또는 짜기 기술을 알고 있었다. 고(故)로 간단한 의류나 용기는 만들었을 것이다.

또 골침(骨針)이 많은 것은 그들이 가죽을 꿰매서 만든 소위 「재봉된 옷」을 입었다는 증거도 된다. 생활(生活)에 필요(必要)한 물건들을 자급자족(自給自足)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물건들이 교역(交易)되었다. 그 물건들은 모피(毛皮), 건어(乾魚), 특수석기, 목기(木器), 목각(木角)등과 어망(魚網), 직물(織物)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⁶⁾

3.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청동기시대의 유지는 대부분이 주거지(住居址)이다.

함경북도(咸鏡北道) 무산군(茂山郡) 무산읍(茂山邑) 호곡동(虎谷洞)에서 많은 유물외(遺物外)에 골침(骨針)과 골추(骨錐)도 출토(出土)되었다.¹⁷⁾

함경북도(咸鏡北道) 회령(會寧)의 오동유적출토(五洞遺蹟出土) 유물(遺物)을 보면 동물(動物)의 뼈와 뼈로 도구(道具)를 만든 것이 적지 않다. 단검(도7)도 있었으며, 송곳(도8.2,3)이나 바늘도 있었고 끌도 있었다. 그리고 뼈로 만든 장식품도(8.1) 있었다.¹⁸⁾

또 오동(五洞)에는 바이칼 지방의 글라쓰코보 시대에 보이는 뼈도구, 즉 골기(骨器)에 유사(類

似)한 것도 있었다.¹⁹⁾

청동기(靑銅器) I 기(期)(B.C 600~300) : 이 시기는 다시 전(B.C. 7,6세), 후(B.C. 5,4세기)의 두 기(期)로 나누어진다. 전기에는 압록강(鴨綠江)유역과 함경북도(咸鏡北道)의 유물들이 이에 속한다.

함경도(咸鏡道)에서는 나진초도(羅津草島), 무산(茂山) 호곡(虎谷), 회령(會寧) 오동(五洞), 웅기(雄基) 송평동(松枰洞)등이 유적이 보여주는 문화(文化)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도기(陶器), 석기(石器), 골각기(骨角器), 장신구(裝身具) 등이 있고 간단한 동장신구(銅裝身具)들도 있었다.²⁰⁾

초도(草島)에는 뼈로 만든 도구가 여러 가지 있었다. 활등과 같이 굽은 짐승뼈와 짐승의 뼈나 이(齒)로써 발톱 같이 만든 것을 합하여 조립식 낚시로 사용(使用)한 것 같다. 짐승 다리뼈의 관절 쪽을 잡는 부분으로 하고 끝을 납작하게 한 것이 있는데 끝이 납작한 것은 끝이고 뾰족한 것은 송곳(도9)이다.

골제(骨制) 바늘도 있고, 그것에는 귀(구멍)가 있는 것, 또는 귀 대신에 잘록하게 홈을 쳐서 실(사(絲))이 거기에 들어가게 한 것도 있다.

바늘과 아울러 짐승의 뼈로서 바늘통(도10.2)도 만들었다.

골제(骨制) 손가락 같이 생긴 것도 있다(도10.1). 손가락(시(匙)) 자루의 안팎에 꼬불무늬(안목형(雁木形))의 한 구비만을 몇줄의 선으로 새겼거나 또는 평행의 직선(直線)과 꼬불무늬를 새겼다.

사슴뿔이나 노루뿔도 도구로 사용하였다.

골제 대롱구슬도 있었다.²¹⁾

무산(茂山) 호곡(虎谷) 유적 교락층에서는 짐승의 견갑골(肩胛骨)로 복골(卜骨)(도11)이 출토되었다. 최초(最初) 출토품(出土品)으로, 중국은상(中國殷商)시대의 것과 같아. 그외 그 자료라고 보이는 견갑골(肩胛骨)은 여러개가 나왔는데, 돼지뼈 같으며 호곡(虎谷)에서 출토(出土)한 동물뼈의 대부분(大部分)이 돼지뼈였다.²²⁾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의 골기(骨器)는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것보다 뚜렷하게 발굴(發掘)된 것은 없다. 골침(骨針), 손가락, 대롱구슬, 여러 가지 도구(道具)와 견갑골(肩胛骨)등(7) 그러나 종류가 좀 다양하여졌다.

동물(사슴, 노루)중에 돼지뼈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할 가치가 있다.

4. 철기시대(鐵器時代)

금속기(金屬器) 이외에 도구(道具)로, 석기(石器), 골각기(骨角器), 목기(木器), 토기(土器) 등(等)이 있었다. 대부분의 석기(石器)는 금속기(金屬器) 앞에 완전 격퇴되었다. 그러나 골각기(骨角器)는 쉽게 구할 수 있어 효과적인 도구(道具)로서 대단히 많이 이용되었다. 사슴, 멧돼지등(等)의 뼈로는 도구(道具), 골침(骨針), 골선(骨鏃), 송곳등의 제조 원료(原料)로 삼았다. 반들거리게 마연(磨研)시킨 긴 골침, 송곳과 사슴뿔 끝으로 만든 칼자루는 이 시대(時代)의 특징적(特徵的)인 도구(道具)가 되었다.²³⁾

김해(金海) 회현리(會峴里) 패총(貝塚)에서 출토(出土)된 골각기(骨角器)는 늑각제(鹿角製)의 철도자(鐵刀子) 자루가 가장 많고 그의 송곳, 선(鏃), 방추차(紡錘車), 각아계수식(角牙製垂飾)등도 있었으며 골각기(骨角器)의 성용(盛用)은 웅천패총(熊川貝塚)에서와 같다. 송곳 혹(或) 첨구(尖具)는 사슴의 지골(肢骨)을 쪼개서 칼로 깎고 모피(毛皮) 등(等)으로 문질러 반들거리게 하였다. 골침(骨

針)에는 킷구멍이 뚫려있다. 골선(骨簪)은 선신(簪身)과 경부(莖部)에 구별이 없는 엽형(葉形)의 것과 단면원형(斷面圓形)의 선신(簪身)에 역시(亦是) 원형(圓形)의 경(莖)이 있다.

성산패총(城山貝塚)에서도 도자병(刀子柄), 골선(骨簪), 골침(骨針)과 아치(牙齒)의 장식품(裝飾品)이 있다.

도자병(刀子柄)은 녹각(鹿角)의 가지를 잘라서 표면(表面)을 손질하여 굵은 쪽에 철도자(鐵刀子)를 낀 것이 대부분이지만 각지(角枝)의 양단(兩端)을 절단(折斷)하여 양면(兩面)에 모두 구멍을 뚫은 것도 있었다.

골선(骨簪)은 길이 9.8cm, 폭 1.2cm, 굵이 6cm, 너비 0.9cm의 두 개 뿐이었다. 모두 이등변(二等邊) 삼각형(三角形)의 무경선(無莖簪)이었다.

이외 구멍뚫린 뼈바늘, 침기(尖器), 사슴이(치(齒))에 구멍뚫은 장식품(裝飾品), 오치(五齒)의 빗 등이 있었다. 빗은 길이 4.3cm, 폭 1.3cm 이가 4개 부러지고 하나만 남았다. 침기(尖器)는 지골(肢骨)을 절개하여 제조(製造)하였다. 경부(莖部)에 구멍이 있어 창(槍) 끝같이 자루에 장착(裝着)한 것 같다. 녹아(鹿牙)는 치관(齒冠)에 구멍이 뚫려 있어 꼬부라진 전형(全形)이 곡옥(曲玉)과 같다.

웅천패총(熊川貝塚)에서도 골어기(骨漁器)는 김해패총(金海貝塚)에서 보는 것과 같은 녹각제자병(鹿角製子柄)과 유경(有莖) 또는 엽형(葉形)의 골선(骨簪)이 있고, 동시(同時)에 점복(占卜)에 사용 가능성(可能性)이 있는 평행선각록골(平行線角鹿骨)들이 출토(出土)되었다. 이 평행각선(平行刻線)은 새긴 것으로 점복(占卜)이 아니더라도 다른 특수용도(特殊用度)에 사용된 것 같다.

동래패총(東萊貝塚)의 야철지(冶鐵址)로 믿어지는 노지(爐址)와 방추차(紡錘車) 골침(骨針), 녹각도자병(鹿角刀子柄), 짐승뼈, 토기(土器) 등(等)이 채집되었다.

부산(釜山) 다대동(多大洞) 패총(貝塚)에서도 녹각도자병(鹿角刀子柄) 두 개가 나왔다.²⁴⁾

양산(梁山) 패총(貝塚)에서 출토(出土)된 골각기(骨角器)의 수효는 많다. 종류는 침구(尖具), 선(簪), 추(錐), 도자병(刀子柄)(도12) 등(等) 여러 가지가 있었다.

침구(尖具)는 사슴등의 지골(肢骨)을 세포로 2분한 다음 한끝을 비스듬하게 때려 꺾거나 쇠도끼나 낫같은 예리한 도구(刀器)로 잘라서 삼각형(三角形) 침두(尖頭)를 만들었다. 타단(他端)은 칼로 대강 손질하거나 양쪽에서 잘라 펜촉 같은 침두(尖頭)로 만들었다. 이러한 침구(尖具)들은 대체(大體)로 크기이며 굵고 단단한 뼈만을 사용(使用)하였는데 침단부(尖端部)가 꺾어지거나 소모되지 않아 굴이나 조개에서 살을 떼는데 사용된 것 같다. 대부분 자연면(自然面)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개중(個中)에는 배면(背面) 일측에 두곳 결락만입부(缺落灣入部)를 만든 것이 있어 나무자루에 결박해서 사용하였을 것이다. 또 뼈나 두꺼운 조개의 외연부(外緣部)를 1cm정도(程度) 폭(幅)으로 떼내고 일단(一端)을 역시(亦是) 사절(斜切)하여 각침두(各尖頭)를 제조(製造)하였는데 길이 4cm정도(程度)의 손 끝에 쥐고 쓰는 꼬챙이 같은 도구로 되어 있다.

동시(同時)에 절개(折開)된 뼈의 일단(一端)을 밖에서 안으로 기술적(技術的)으로 꺾어 얇고 긴 설(舌), 또는 구두주걱 같은 모양의 도구(道具)로 만든 것이 있다. 조개의 살을 떼는데 적합한 도구(道具)이다. 이러한 구두주걱 같은 모양은 구석기후기(舊石器後期) 골기(骨器)(투창, 끌, 송곳) 일단(一端)의 사단면(斜斷面)(biseau)과 같은데 이것은 나무자루에 끼워서 떼는데 편리하다.

골선(骨簪)(도13) 절개된 뼈 조각을 칼로 깎아서 길이 6~7cm 정도(程度)의 엽형선(葉形簪)을 제조(製造)하였다. 단면(斷面)은 제형(梯形), 구형(矩形), 반원형(半圓形)등 부정형(不定形)이 대부분이다. 단면(斷面)이 삼각형(三角形)인 세장(細長)하고 반들거리게 제조(製造)한 예(禮)도 있다.

골추(骨錐)는 깎고 깎은 흔적을 없애도록 마광(磨光)하였다. 굵기는 0.4mm 정도(程度)가 보통(普通), 0.8mm나 되는 것도 있고 길이가 15cm되는 것도 있다. 일례(一例)는 두부(頭部)가 마디

처럼 각형(角形)이고 상단(上段)이 수평(水平)으로 절단(折斷)되었으며 그 전면(前面)이 모두 마광(磨光)되어 상아(象牙) 같은 질감을 나타낸 것이 있었다. 이러한 것은 당시(當時) 사람들이 얼마나 유의하여 제조하였나 알 수 있다.

도자병(刀子柄)은 골각(骨角)을 잘라서 만든 것으로 이 시대(時代)의 대표적(代表的)인 도구(道具)이다. 보존(保存)이 양호(良好)한 일점(一點)으로 각지(角枝)의 양단(兩端)을 단번에 자른 것으로 길이 9.6cm 칼 꽂히는 부분의 장경(長徑) 3cm, 단경(短徑) 1.8cm, 병두부(柄頭部)의 장경(長徑) 2.2cm, 단경(短徑) 1.6cm, 칼 꽂혔던 구멍 1.8cm×0.5cm이고, 따로 병측(柄側)에 경(徑) 0.5cm이 정원형(正圓形) 구멍이 맞물려 있어 칼이 뽑아지지 않게 못을 끼웠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자루 중에는 칼 꽂혔던 구멍이 둥글고 길어 송곳을 꽂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착공구(鑿孔具), 속이 텅빈 조골(鳥骨)의 일단(一端)을 사절(斜切)해서 붓대처럼 만든 것인데 첨단부(尖端部)는 고르지 못하다. 토기 같은 것이 마르기 전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되었던 착공기(鑿孔器)나 무엇을 후벼내던 도구(道具) 같다. 직경 약 0.6cm이다.

다른 일례(一例)는 경(徑) 0.4cm의 새뼈를 세로로 할개(割開)하여 그 한쪽을 V형으로 잘라 펜촉처럼 만들었다. 펜 끝에서 0.8cm되는 위치(位置)에서 좌우(左右) 양측(兩側)에 각각(各各) 결입부(缺入部)를 만들어 역시(亦是) 세병(細柄)에 결합한 것 같다. 자루쪽에 부러진 것 같은 현장(現長) 3.7cm 소(小)하고 연약(軟弱)한 것으로 보아 토기(土器)의 구멍뚫는 것 외(外)에 다른 용도가 없었던 것 같다.

용도불명구(用途不明具), 경(徑) 1cm 정도(程度)의 비교적 굵은새 뼈의 원주(圓周) 3분의 1 정도가 잘려진 일단(一端)은 직선, 타단(他端)은 사절(斜切)한 길이 4.7cm의 첨구(尖具)인데 표면(表面)에 5선(線)의 평행중선(平行縱線)을 새겼다.

대구달성공원유적(大邱達城公園遺蹟) 최하층(最下層)(3층)에서 양산식(梁山式)의 골선(骨簞)들이 발견(發見)되었다.

또 녹각(鹿角)의 기부(基部)를 상하(上下)에서 절단(切斷)한 것으로 길이 3.9cm, 폭 2.3cm인데, 예리한 철도(鐵刀)로 잘랐다. 한쪽에 몇 줄기 칼자국이 있다. 일종의 골기(骨器)를 제조하다 버린 것인지 옹천의 점복(占卜)과 같은 것이지 알 수 없다.

경주(慶州) 월성유적(月城遺蹟)에서도 골제첨구(骨製尖具), 골선(骨簞), 녹각도자병(鹿角刀子柄) 등과 골껍질 들을 발견(發見)하였다.

골기(骨器)의 제작(製作)에 관(關)해서 부분적(部分的)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패총에서 대량(大量)으로 출토(出土)되는 골선(骨簞)들은 그 성격(性格)으로 보아 새를 잡는데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오리, 기러기 등의 사냥에 가깝고 멀리가서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골기(骨器)의 제작은 자급자족(自給自足)이 가능(可能)한 간단한 경우도 있으나 마광(磨光)된 골침(骨針), 골선(骨簞)의 존재(存在)는 분업화(分業化)된 특수기술자(特殊技術者)의 존재를 예상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여자들에 의해 자급자족(自給自足)되는 물건들 같다.²⁵⁾

5. 결 어

도표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한국 선사시대(先史時代)의 골기(骨器)(l'outillage en os)는 약(約) 22종으로 신석기 14종, 청동기 5종(신중), 철기 3종(신중)이다. 이러한 종(種)의 구분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例)를 들면 원보고자(原報告者)들도 엄밀하게 송곳인지 추(錐)인지 모르며, 구멍뚫린(치근(齒根))이가 장식품인지 다른 용도(用途)

에 사용(使用)된 것인지 부지(不知)하기 때문이다. 또 첨기(尖器)가 반드시 도구(道具)라고 할 수 없다. 모든 뼈들은 깨질 때 예리한 일단(一端)을 남기는 것은 누구나 닭고기를 먹을 때도 볼 수 있는 예(例)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4년동안 참가한 Pincevent(불란서 파리교외, 마그다레니엔 시대 유적지) 발굴에서 보아온 수많은 순록(Renne)뼈는 세에느강변의 알카리성토양(sols alcalins humides)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보존상태가 대단히 양호(良好)하다. 출토(出土)된 분명(分明)한 골기(骨器)외에 많은 양의 뼈조각은 때로는 일단(一端)이 때로는 양단(兩端)의 끝이 예리하다. 이를 어느 용도에 사용한 도구라고 볼 수 없다. 주지(周知)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구(道具) 혹(或) 공구(工具)는 인공(人工)이 가(加)한 흔적이 있고 그 형태가 어느 범위 내에 속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인간(人間)은 일찍부터 뼈속의 골(la moelle)을 먹었다. 뼈속의 골을 먹기 위해서는 양단(兩端)을 깨서 한쪽에서 빨아먹거나 아니면 뼈를 돌이나 다른 망치로 깨서 먹어야만 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산성토양(sols acides humides)이다. 이곳에 동물의 뼈가 보존(保存)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흔하지 않은 뼈의 출토(出土)지만 끝이 예리한 첨기(尖器) 혹(或) 첨구(尖具)는 신중을 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같다. 물론 즐문토기시대(櫛文土器時代) 시문구(施文具)는 첨기(尖器)나 첨구(尖具)가 한 것을 부인(否認)하지 않지만, 이러한 도구(道具)를 하나의 일상용구(日常用具)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마 일상용구(日常用具)는 아니고 어느 곳에서나 구할 수 있는 아주 보편화된 임시대구이었을 것이다.

철기시대(鐵器時代) 토기(土器)의 구연부(口緣部) 하(下)에 구멍뚫기에 사용된 착공구(鑿孔具)도 상술(上述)한 예(例)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14종의 골기(骨器)는 중국(中國) 신석기(新石器)의 가장 이른 시기인 반파촌(半坡村) 양소(仰韶)유지(C14에 의한 절대연대 B.C 4115±110년)에서 출토(出土)된 골기(骨器), 골침(骨針), 송곳, 작살, 골선(骨鏃), 창선(槍鏃), 끌, 초(鍬), 첨기(尖器)(points), 마광기(磨光器)(polishers) 혹 예새, 구슬(beads)등(等)과 유형상(類型上) 같다²⁶⁾.

특히 우리 신석기시대 중기 즉 동삼동(東三洞)Ⅱ(B.C 3,000~1,700, 1,800년에 속(屬)하는 동삼동(東三洞)Ⅱ층에서 출토(出土)된 골기(骨器)는 그 대표적(代表的)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문화(文化)의 상이성(相異性)과 연대상(年代上) 큰 차이(差異)는 비교(比較)를 불능(不能)하게 하지만 인접한 두 지역문화(地域文化)의 동류성(同類性)은 무시(無視)할 수 없다.

이러한 동삼동(東三洞)Ⅱ(즐문1)의 골기(骨器)는 즐문Ⅱ기에 속하는 궁산리(弓山里)유지에서 계속되고 더욱 발전되었다. 특수한 점은 동삼동(東三洞)Ⅱ에는 고기잡이 도구(道具)가 위주(爲主)인데 궁산리(弓山里)는 농구(農具), 추(錐)·검(鎌)과 장식품(裝飾品)이 출토(出土)된 것이다.

중국신석기후기(中國新石器後期)인 용산문화(龍山文化)의 유림(劉林)유지에서는 몇점의 정교한 골기(骨器)²⁷⁾가 출토(出土)되었으나 전자(前者)(양소(仰韶))보다 종류는 다양(多樣)하지 않았다.

우리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는 청동기(靑銅器) I 기(期)(B.C 600~300년)에 속(屬)하는 초도(草島)·호곡동(虎谷洞)·오동(五洞)유지(遺址)에서만 골기(骨器)가 출토(出土)되었다.

매우 흥미있는 사실은 이 3유지에는 첨기(尖器)·예새·시문구(施文具)가 일점(一點)도 출토(出土)되지 않아 무문토기시대(無文土器時代)를 재인식(再認識)시키는 좋은 증거가 되었다.

호곡동(虎谷洞)에서는 중국은대(中國殷代)의 유물(遺物)과 같은 견갑골(肩胛骨)이 출토(出土)되었다.

골침(骨針)은 세 유지(遺址)에서 모두 출토(出土)되었고 낚시는 오동(五洞)과 초도(草島)에서 나왔다.

이 세 유지중에 초도골기유물(草島骨器遺物)은 비교적 다양(多樣)하다. 그 중에서도 바늘통, 수저와 대롱구슬은 생활의 풍부함을 말하여 준다. 일반적으로 석(石)의 성질(性質)은 취약(脆弱)하다.

그래서 얇은 날(刀)을 만들 수 있지만 길고 예리하게는 만들 수 없다: 골(骨)의 성질(性質)은 견고(堅固)하고 질기(靱)다. 날(刀)은 들에 미칠 수 없지만 뼈로는 길고 가늘게 만들 수 있어, 그 예봉(銳鋒)은 석기(石器)보다 우세하여, 석기공용(石器功用)의 부족(不足)함을 보충하여 준다. 이 결과 선사문화중(先史文化中)에 골기(骨器)는 석기(石器)와 거의 같은 속도로 발전되었다.

중국(中國)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은대전기유지중(殷代前期遺址中), 정주자형산(鄭州紫荊山) 북(北)쪽 상대주거지(商代住居址) 부근에서 하나의 수정요혈(水亭口穴)을 발견(發見)하였다. 내(內)에는 톱질하고 마제(磨製)된 골선(骨簫)과 뼈비녀의 완성품(完成品), 미완성품(未完成品), 골료(骨料), 폐료(廢料) 등(等) 1,000여점이 있었다.

그리고 숫돌(礪石)도 11점이 있었다. 골료(骨料)는 소, 사슴의 뼈가 많았고 인골(人骨)도 상당수 있었다. 이곳은 아마 골기제조소(骨器製造所)같다.

소둔서(小屯西)의 북신장(北辛莊)에서 발견된 은대후기주거지일좌(殷代後期住居址一座), 골료갱일개(骨料坑一個)에서 대단히 많은 골료(骨料)와 공구(工具)가 출토(出土)되었다. 골료(骨料)는 제일 많은 것이 소와 돼지, 다음 개·말·양과 소수의 녹골(鹿骨)과 녹각(鹿角)이며 인골(人骨)은 없었다.

은대유지(殷代遺址)에서 출토(出土)된 자료(資料)에 의(依)하여 다음과 같이 골기제작(骨器製作) 순서를 알아볼 수 있다.

1) 재료선택 : 골선(骨簫)을 만들 때는 먼저 짧고 견고한 골조(骨條)를 선택, 추(錐)를 만들 때는 길고 예리한 골조(骨條)를 채택, 침(針)과 비녀는 세장(細長)하고 실심(實心)한 골조(骨條)를 선택, 골관(骨管)(대롱구슬)과 환(環)은 크고 속이 빈 골조(骨條)를 채택한다.

2) 재료의 절단 : 제품(製品)의 척촌(尺寸)에 의해서 적합하게 골료(骨料)를 자른다. 예(例)를 들면 선(簫), 짧게(단(短)), 비녀는 길게 침(針)은 가늘게(세(細)), 추(錐)은 첨(尖)하게, 환편관(環扁管)은 높이가 일정하게 자른다. 자르는 용기(用器)는 모두 동제(銅製)톱이다.

3) 칼로깎기 : 잘려진 골료(骨料)를 칼로 원하는 물건에 접근하도록 깎거나 줄(착(錯))같은 것으로 연마(研磨)한다. 예(例)를 들어 원추정(圓錐頂)의 계(筭)(비녀)모(帽)를 만들려면 먼저 소방골편(小房骨片)으로 자른 다음 다면형침추체(多面形尖錐體)로 깎는다. 그후 줄 같은 것으로 면(面)을 밀어 원추형(圓錐形)을 만든다.

4) 구멍뚫기 : 구멍을 뚫으려면 일개원공침(一個圓孔針)을 이용한다.

예(例)를 들면 원추정(圓錐頂)의 비녀, 원추저부(圓錐底部)에 일개 소공(小孔)을 뚫은

후 계주상(筭柱上)에 맞춘다.

5) 마광(磨光) : 줄로 갈은 것과 톱질한 흔적이 지저분하다. 광활(光滑)하기 위해서는 세사석(細砂石)에 갈어 형겼으로 닦아 빛을 내면 매끄럽고 광택(光澤)이 난다. 골기(骨器)는 이 다섯가지 과정을 대개 거쳐서 완성(完成)된다.

은대(殷代)의 골기(骨器)는 대개 골계(骨筭), 골비(骨匕)(수저) 골추(骨錐)이 제일 많고, 골선(骨簪), 골침(骨針)이 다음이다.

이 골기(骨器)들의 용도(用途)는 다음과 같다.

골계(骨筭)는 머리에 사용, 남녀귀천(男女貴賤)을 막론하고 매인(每人) 일지(一支)를 소유(所有), 어느 사람은 십수지(支)를 가졌다. 정단(頂端)에 조각과 문양있다. 수량 제일 많다.

골비(骨匕)는 음식용, 역시 모든 사람 필수품, 약간 굽은 장골편(長骨片)으로 만들어졌다. 어느것은 전단(前端)이 넓고 후단(後端)이 좁다. 내변(內邊)은 두텁고, 외변(外邊)은 얇다. 어느 것은 아름다운 문양을 조각하였다. 수저와 비너는 사람들의 필수품, 골제(骨製)는 가볍고 견고하여 동(銅), 옥(玉), 목(木), 석제(石製)보다 편리하여 많이 만들었다.

골선(骨簪)은 석기시대(石器時代)의 습용물(習用物)이다. 은(銀)은 청동시대(青銅時代)이지만 청동(靑銅)은 귀하고, 화살은 한번 쏘면 돌아오지 않는 물건이라 청동(靑銅)으로 만들 수 없었다. 전쟁(戰爭) 또는 사냥에 필수품이 되어 대량(大量) 제조하였다.

골추(骨錐)는 일단대(一端大), 일단(一端)이 첨(尖)하여 가죽, 두터운 천 등에 구멍뚫는데 사용한다.

골침(骨針)은 일단유공(一端有孔), 일단유첨(一端有尖) 또는 구멍없고 양단(兩端) 예리하다.

봉제용 두점 모두 일상생활용구(日常生活用具), 고로 출토품(出土品) 많다. 그러나 금속제(金屬製)의 침(針), 추(錐) 발생(發生)후 골침은 점점 사라졌다.

기타(其他) 우아(牛牙)로 만든 산(鏟)·부(斧)·도(刀)가 있었다. 또 작살, 바늘통도 있었다. 그의 뼈빗도 종종 있었다.

각(角)의 제조(製造)는 골(骨)과 같은 방법(方法)이었다.

또 활을 제조하는 6가지: 간(幹)(목(木)), 각(角), 호, 근사(筋絲), 칠중(漆中), 간(幹)과 각(角)이 위주(爲主)이다. 각(角)은 활을 만드는 중요한 자료(資料)의 하나였다.

골각외(骨角外)에 상아(象牙), 야저아(野豬牙)의 제품(製品)도 있었다²⁸⁾.

철기시대(鐵器時代) 골기(骨器)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칼자루와 화살이다. 또 이 유물들은 우리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에는 출현(出現)하지 않았다. 이 두가지 유물은 우리 철기시대유지(鐵器時代遺址)에서 거의 모두 출토(出土)되었다. 이 두가지 유물의 많은 출토(出土)는 전쟁(戰爭)과 수렵이 이 시대에 빈번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복골(卜骨)같은 유물이 출토(出土)된 점도 사회생활(社會生活)의 다난(多難) 혹(或) 교역(交易)에 의한 새로운 종교사상(宗教思想)이 출현(出現)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前) 두 시대(신석(新石)·청동(靑銅))에 없었던 생활용구(生活用具), 빗이 출현되고,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에 없었던 첨기(尖器)도 다시 나왔다.

골기(骨器)는 대부분 분업(分業)에 의한 산물로서 교역(交易)로 얻어진 것 같다.

필자(筆者)는 뼈로 만든 모든 유물을 골기(骨器)라고 칭(稱)한다. 이유(理由)는 각(角)으로 만든 유물이 골기(骨器)의 위주(爲主)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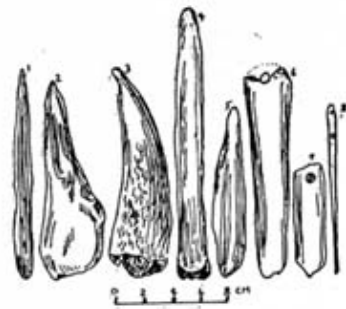
시대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유물명																		
신석기시대	경주	○	○	○	○	○	○	○	○	○	○	○	○	○	○	○	○	○	○	○	○
	경주	○	○	○	○	○	○	○	○	○	○	○	○	○	○	○	○	○	○	○	○
	경주	○	○	○	○	○	○	○	○	○	○	○	○	○	○	○	○	○	○	○	○
청동기시대	경주					△															
	경주					△															
철기시대	경주	×																			
	경주	×																			
	경주																				
	경주																				
	경주	×																			

참고: 신석기시대 ○
청동기시대 △
철기 시대 ×
표 1. 한국전국 시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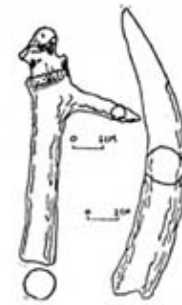
<표> P148

참고: 신석기시대 ○
청동기시대 △
철기 시대 ×

도표 1, 한국 선사시대의 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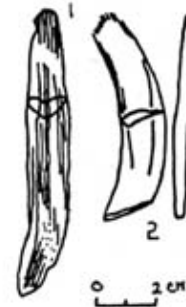
[도 1] 궁산(弓山)의 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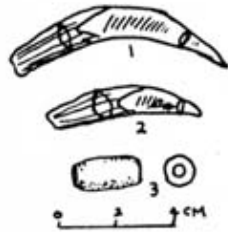
[도 2] 궁산(弓山)의 도구



[도 3] 궁산(弓山)의 낫



[도 4] 施文具 1, 弓山 2, 農圃



[도 5] 궁산(弓山)의 칼과 대롱구슬



[도 6] 農圃의 첨두

P150

[도 1] 궁산(弓山)의 골기(骨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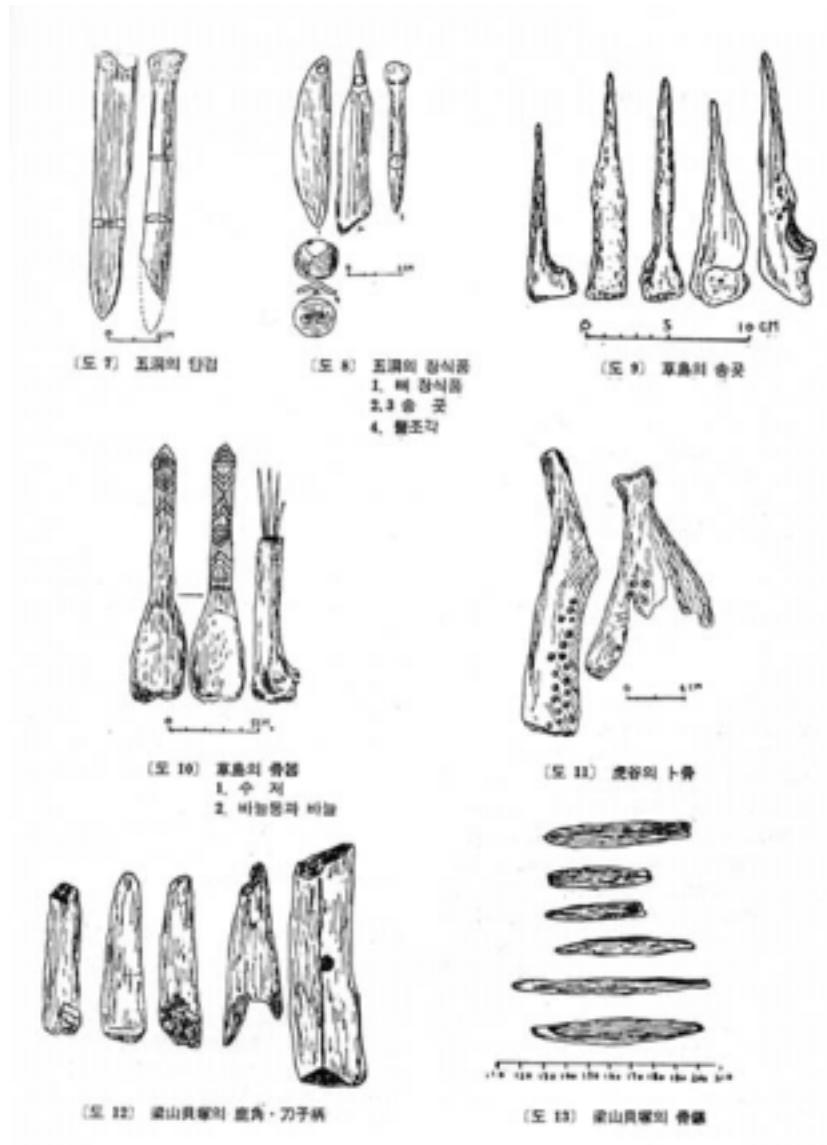
[도 2] 궁산(弓山)의 도구(道具)

[도 3] 궁산(弓山)의 낫

[도 4] 시문구(施文具) 1, 궁산(弓山) 2, 농포(農圃)

[도 5] 궁산(弓山)의 칼과 대롱구슬

[도 6] 농포(農圃)의 첨두(첨頭)



P151

[도 7] 오동(五洞)의 단검

[도 8] 오동의 장식품

1. 뼈 장식품 2,3 송곳 4. 뿔조각

[도 9] 초도(草島)의 송곳

[도 10] 초도(草島)의 골기(骨器)

1. 수저 2. 바늘통과 바늘

[도 11] 호곡(虎谷)의 복골(卜骨)

[도 12] 양산패총(梁山貝塚)의 녹각(鹿角)도자병(刀子柄)

[도 13] 양산패총(梁山貝塚)의 골촉(骨鏃)

〈註〉

- 1) Mou-Chng CHoi—Le paleolithique de la Chine, Universite de Paris I, these (學位論文), 1973. 6 pp.135~136
- 2) F. Bordes—Le paleolithique dans le monde. Hachette, paris pp.92~93
- 3) F. Bordes—前掲書 pp.110~111
- 4) F. Bordes—前掲書 pp.24~27
- 5) F. Bordes—前掲書 pp.148~154
- 6) H. Breuil—Les subdivision du paleolithique Superieur et leur Signification. C.I.A et A. Prehistorique, Compte Rendu de la XIV Session Office des editions Universitaires, paris. 1912 p.26
- 7) H. Breuil—前掲書 pp.28~58
- 8) Mou-chang CHoi, 前掲論文 pp.228~233
- 9)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I 1974 pp.120~121
- 10) 도유호—조선원시 고고학 pp.41~42
- 11) 국사편찬위원회—前掲書 p.133
- 12) 국사편찬위원회—前掲書 p.144
- 13) 국사편찬위원회—前掲書 p.160
- 14) 국사편찬위원회—前掲書 p.89~90
- 15) 국사편찬위원회—前掲書 p.93
- 16) 국사편찬위원회—前掲書 p.96~99
- 17) 국사편찬위원회—前掲書 p.172~3
- 18) 도유호—前掲書 p.173
- 19) 도유호—前掲書 p.210
- 20) 국사편찬위원회—前掲書 p.386
- 21) 도유호—前掲書 p.166
- 22) 도유호—前掲書 pp.187~188
- 23) 국사편찬위원회—前掲書 pp.398~399
- 24) 국사편찬위원회—前掲書 p.420~427
- 25) 국사편찬위원회—前掲書 pp.432~445
- 26) Kwang-Chih CHANG—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 Yale U. Press. 1968. pp.104~105
- 27) Kwang-Chih CHANG—前掲書 p.140
- 28) 郭寶鈞—中國青銅器時代·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63. pp.71~78